



광주에 온 ‘랩터’ 한미 양국 공군의 연례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가 시작된 4일,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철새는 날아오고 ... 관광객 떠나가고 ...

■ 르포 - AI로 3년째 폐쇄 순천만 인근 상인들 울상

곳곳 ‘휴업’ 간판... “피해대책 없는 무성의 행정” 분통

지난 2일 방문한 순천만 습지는 정적만 감돌았다. <관련기사 3면> 예년 같으면 철새를 구경하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탐방객들로 북적였을 순천만에는 ‘출입금지’라는 플래카드만 곳곳에 내걸려 있었다.

지난달 21일 채취한 순천만 철새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순천만 습지는 폐쇄와 함께 탐방객 입장도 전면 금지됐다. 순천만습지가 갑자기 폐쇄되면서 인근 주민은 물론 100여곳에 이르는 주변 식당과 카페, 펜션 등 상인들의 피해도 심각했다. ‘순천만 AI로 인해 당분간 휴업합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가게 입구에 부착하는

등營業을 포기한 업소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날 만난 순천만습지 인근 상인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다.

순천만상가변영회 조종현(52) 회장은 “AI와 관련해 지난 2014년과 지난해, 그리고 올해까지 순천만습지를 폐쇄하면서 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순천시에서는 갑작스런 폐쇄에 대한 피해대책은커녕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다. 무작정 기다리다가 모두 망해 길거리에 나앉은 판”이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순천시가 매년 겨울이면 전국 대표 관광명소인 순천만습지를 AI예방 차원에서 폐쇄하면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고

통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3차례에 걸친 폐쇄로 주변 상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순천시는 정부지침 등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대책을 외면하는 등 무성의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4일 순천시와 순천만습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순천시는 AI와 관련해 그동안 총 3차례 순천만습지를 폐쇄했다.

1차는 2014년 1월22일부터 3월15일까지 총 53일간이며, 2차는 2016년 12월19일부터 2017년 2월3일까지 총 47일간이다. 올해는 지난달 21일부터 폐쇄한 상태다.

3차례 폐쇄조치가 내려진 순천만습지에서 고병원 AI가 확진된 경우는 올해가 유일하다. 나머지 2차례는 예방조치로 폐쇄됐다. 올해도 철새의 분변에서만 AI 확진판정이 났을 뿐 철새가 죽거나, 인근 농

장에서 조류가 폐사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다.

앞서 두 차례의 폐쇄조치까지만해도 참고 견뎠던 인근 주민과 상인들도 순천시의 주민을 배려할 때도 됐는데, 순천시는 터트리고 있다.

순천만습지 앞 대대마을의 한 주민은 “철새 분변에서 뭐가 나왔다고 하던데, (순천시에서)최소한 주민들에게 주의사항 등 상황설명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겨울이면 폐쇄를 반복하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크다. 지역 이미지 실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순천만습지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순천시가 나서서 전남도와 정부에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월세에도 종업원 급여, 미리 확보해 놓은 음식물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순천시에서는 단 한차례도

현장방문은커녕 폐쇄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순천만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전병렬(53)씨는 “벌써 폐쇄만 3번째다. 대책을 마련할 때도 됐는데, 순천시는 매번 ‘폐쇄할테니, 피해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순천시 관계자는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 다른 지자체의 지원 사례도 없다”면서 “앞으로 지원계획 등을 검토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습지는 현재 역대 가장 많은 2100여마리의 흑두루미(천연기념물 228호)와 2만5000여마리의 철새가 찾아와 화려한 군무를 펼치고 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순천=김은경기자 ejkim@kwangju.co.kr

예산안 타결...공무원 증원 9475명 절충

여야 최종 합의,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 통과될 듯

법인세 과표기준 3000억원으로 ... 최고세율 25%

여야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실무 절차를 거쳐 오는 5~6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석규모상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

지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모두 찬성하면 예산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은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예산안을 내일(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 수준으로 확정했다. 다만, 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유보했다.

여야는 일단,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사항에 대한 추진 여부를 묻고 예산안 처리 실무절차에 들어갔다.

우선, 여야는 예결위에서 보류된 안전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다. 또 3당의 공통

중요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한 뒤 중역사이에 대한 재심사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여야가 예산 협상을 오늘 타결했지만, 실제 정리 작업 등을 감안해 오늘 안에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내일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서 한미연합 공중훈련

스텔스 전투기 F-22 전개

한미 양국 공군이 4일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6대를 포함한 230여대의 항공기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시작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하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고강도 군사적 압박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이날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미 7공군사령부는 오늘부터 8일까지 한미 공군의 전시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한미 공군은 대비태세 강화를 목적으로 해마다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해왔지만, 이번 훈련은 규모와 강도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이번 훈련에 일본 오키나와와 가나나 공군 기지의 스텔스 전투기 F-22 6대를 투입했다. 미국이 F-22 6대를 한꺼번에 한반도에 전개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일 광주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지에 도착한 F-22 편대는 이날 아침 이륙해 한반도 상공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F-22는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고 최고속력도 마하 2.5를 넘어 적 방공망을 뚫고 은밀하게 침투해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방공망이 취약한 북한에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꼽힌다.

한미 공군은 이번 훈련에서 유사시 북한군 항공기의 공중침투를 차단하고 북한 상공에 침투해 이동식발사차량(TEL) 등 핵·미사일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연합뉴스

최진석의 老莊의 생각 - 침묵 ▶18면

KIA 양현종 황금장갑 품을까 ▶20면

정통 차이나이스 레스토랑 **홍메이**가 오픈하였습니다.

“최고의 음식”“최상의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은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정통중화요리

가 족 모 임
비즈니스모임
단체석완비

紅梅

홍메이

- 각종 행사를 위한 품격있는 장소 -

화순 엘리체 골프장 주방장이 직접 요리하는 품격있는 중국집!

예약문의. 062) 571-5531 광주시 북구 설중로 419(삼각동 507-5) 일곡 엘리체 프라임 APT 상가 115동 2F